

ISSN 1599-7863

# 박물관사람들

2018년 가을 · 63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철제 불두, 국립중앙박물관

#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 2018년 가을 ■ 63호 Contents

기획/불교조각실	순금 부처	4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8
	가만가만 손을 뺐으면	12
	조우	16
문화칼럼	특별전 조선지도 500년	18
박물관 탐방	현재진행형 - 국립한글박물관	22
답사기	지난 여름, 담양	24
전시실 산책	사람과 동물의 제국	27
회원마당	화암사, 바위 위에 핀 꽃	30
숨은 전시	영원을 위해서라면	33
국립중앙박물관회는		34

발행일 2018년 9월 5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790~3  
 발행·기획 신병찬 편집회원 강현자·계윤애·길문숙·문정원·서유미·정은정 진행 서승연 디자인 문화공감 (02)2266-1897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회지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순금 부처



금제아미타불좌상,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3층 '불교조각실'에는 시대도 크기도 재료도 자세도 제각각인 온갖 부처님들이 계신다. 최고 스타인 국보 78호와 83호 금동반가사유상을 비롯해 금동관음보살 입상, 부여 군수리 석조불좌상, 철조석가불좌상 등등. 불상의 이름에는 출토지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재료, 보살인지 부처인지 하는 이름이 뒤를 잇고, 마지막에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하는 자세가 온다. 가장 많이 사용된 재료는 단연 청동이나 황동 같은 구리 합금으로 주조한 뒤 금으로 도금한 금동이다.

돌이 그 뒤를 따르고, 철은 나말여초라는 특정한 시기에 주로 사용되었다. 재료면에서 단연 희소할 불상은 국보 79호인 황복사터 금제아미타불좌상과 80호인 황복사터 금제불입상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순금 불상은 이 둘을 포함하여 단 세 점뿐이다.

『중야합경』, 『방광대장엄경』 같은 불교경전에는 깨달음을 얻은 존재인 부처의 모습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부처의 몸에는 32가지 현저한 특징과 80가지 세부적 특징이 있다는 뜻의 '32상 80종호'가 바로 그것이다. 32상 가운데 '身金色相'(신체의 색깔이 황금과 같다.)과 '常光一丈相'(몸에서 사방으로 1장 길이의 빛이 나온다.)에 따라 불상을 금빛으로 만들었고, 금인金人이라 불렀으며 불상을 모신 집인 금당金堂이 사찰의 가장 중심 건물이 되었다.

금빛 부처님을 만들려면 순금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텐데 순금 부처님은 왜 이렇게 드문 것일까? 금값이 비싸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금이라는 소재 자체의 특성도 제작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다. 청동은 800℃ 정도

면 녹기 시작하지만, 금은 녹는점이 1064℃이다. 그래서 주물로 형상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또한 밀도가 강철의 2.5배 정도로 높아 무겁다. 가장 큰 약점은 물러서 쉽게 형태가 변한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순금인지 확인하려면 이로 깨물어 보아 자국이 나는지 살피는 게 상식이 되어 있을까?

이런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만든 황복사터 금제 불상은 다행히도 언제, 누가, 왜 만들었는지 하는 기록이 남아 있다. 1942년 경주의 낭산狼山 북쪽 끝자락 절터에 서 있는 황복사터 삼층석탑을 해체 수리할 때, 2층 지붕돌 안에서 금동사리함이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금제 불상 2점, 금제와 은제 상자, 금제와 은제 굽다리잔, 유리판, 유리구슬 등이 들어 있었다. 또 사리함 뚜껑에는 해서체로 1행에 20자씩 총 18행의 명문이 새겨져 있었고, 다른 면에는 99기의 작은 탑이 새겨져 있었다.

“대저 성인은 가만히 있으면서 혼탁한 세상에서 백성을 기르고 지극한 덕은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황복사터 사리함, 국립중앙박물관



금제불입상, 국립중앙박물관

중생을 제도한다. 신문대왕이 오계로 세상에 응하고 십선으로 백성을 다스려 통치를 안정하고 공을 이루고는 천수 3년(692) 임진년 7월 2일에 돌아갔다. 신목태후와 효소대왕이 받들어 종묘의 신성한 영령을 위해 선원가람에 삼층석탑을 세웠다. 성력 3년(700) 경자년 6월 1일에 신목태후가 마침내 세상을 떠나 높이 극락에 오르고 대족 2년(702) 임인년 7월 27일에는 효소대왕도 승하하였다. 신룡 2년(706) 경오년 5월 30일에 지금의 대왕이 부처 사리 4과와 6치 크기의 순금제 미타상 1과와 무구정광대다라니경 1권을 석탑의 둘째 층에 안치하였다. 이 북전으로 위로는 신문대왕과 신목태후 효소대왕의 대대

성묘가 열반산을 베고 보리수에 앉는 데 보탬이 되기를 빈다…….”

명문의 내용에 따르면, 692년 신문왕이 죽자 왕비였던 신목태후와 아들인 효소왕이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종묘 역할을 하던 왕실 사찰에 삼층석탑을 세웠다. 6살 어린 나이에 즉위했던 효소왕이 16살 되던 해인 702년 세상을 떠나자, 왕위를 계승한 그의 동생 성덕왕이 706년에 어머니와 형을 위해 불사리 4과와 순금 아미타상 1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1권을 탑에 추가로 안치했다.

즉, 순금 불상은 통일 이후 국력이 강해진 신라 왕실에서 돌아가신 왕을 위해 직접 발원한 것들이다. 두 불상 모두 광배와 대좌는 금동으로 따로 주조하여 붙였다. 금제아미타불좌상은 12.2cm, 금제불입상은 14cm의 아담한 크기인데 명문에는 언급이 없지만 두 불상의 양식이나 모습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미타불좌상이 706년에 안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불입상의 얼굴을 살펴보면 눈, 코, 입의 윤곽선이 부드럽고 살짝 올라간 양 입가에는 고졸古拙한 미소가 어려 있다. 손은 몸에 비해 큰데 왼손으로는 옷자락을 움켜쥐고, 오른손은 위로 들어올려 시무외인을 취했다. 옷자락을 낀 형식은 인도의 마투라나 간다라, 중국 6세기 불상에서 나타나는 오래된 방식이다. 옷은 양 어깨를 덮었고 한쪽 자락을 왼쪽 등뒤로 넘겼다. 두툼한 옷을 입어 신체가 드러나지 않으며, U자 형 옷주름이 층층이 흘러내리고 있다. 목에 삼도가 없는 것도 삼국시대 불상의 특징이다. 광배에는 문양과 크기가 다른 동심원과 타오르는 불꽃 모양이 새겨졌으며, 불두 바로 뒤에는 연꽃잎을 덧대었다. 머리와 가슴 뒤쪽에는 주조에 필요한 틀 고정용 못을 제거한 흔적이 보이고, 등에는 흠으로 만든 원형을 완성 후에 파냈던 구멍이 보인다.



익산 원수리 출토 순금 불상, 국립전주박물관

아미타불좌상은 눈, 코, 입의 윤곽선이 뚜렷하고 표정도 훨씬 근엄하다. 옷은 여전히 양 어깨를 덮었지만 훨씬 얇아져 몸의 굴곡과 풍만한 선을 그대로 보여준다. 표현도 훨씬 세밀해져 들고 있는 오른손바닥에는 손금까지 나타나 있다. 목에는 삼도를 표현한 주름선이 뚜렷해졌고, 수인 역시 당시 당나라에서 유행하던 아미타불과 비슷하다. 불입상과 아미타불좌상이 석탑에 안치된 것은 14년 차이이지만, 이 사이 신라의 문화와 예술은 훨씬 국제적이 되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불상이다.

이런 추측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유물은 금동사리함이다. 명문에서 말하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704년 중국에서 처음 한자로 번역된 경전이니, 성덕왕은 불과 2년 전에 번역된 경전을 봉안했을 뿐 아니라, 사리함에 99기의 작은 탑을 새겨넣어 “다라니 99벌 혹은 77벌을 써서 작은 진흙탑에 넣어 경전을 봉안하면 그 사람은 수



익산 원수리 출토 순금 불상 뒷면

명을 연장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다.”고 한 다라니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세 번째 순금 불상은 ‘익산 원수리 출토 순금 불상’으로 1963년 농부가 밭을 갈다 발견했다. 농부는 금은방에 이 불상을 팔러 갔는데, 여섯 돈의 금값만 쳐주겠다는 말에 실망하고 돌아왔다 한다. 크기가 5cm인 이 불상의 뒷면에는 ‘男 善人 辛丑正月日 金○○’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신축년 1월에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발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역삼각형 얼굴, 오른쪽 어깨 위에 살짝 걸친 옷자락, 대좌의 모습 등이 원나라 때 성행한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보여주는 점을 생각하면 이때의 신축년은 1361년일 가능성이 많다. 뒷면 위쪽에는 고리가 달려 있어 여기에 줄을 꿰어 목걸이처럼 걸었을 것으로 보인다. 🍁

김문숙 회원

#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팔순이 코앞이신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손녀를 위해 절에 등을 달고 기도를 하실 거란다. 30년도 더 지난 일들이 떠올랐다. 남매의 대학입학시험 날이면 어머니는 108배를 올리셨다. 명이 들어 시커멓던 어머니의 무릎이 눈에 선하다. 고기 먹고 파리, 모기 잡았는데 기도발이 들겠냐며 투덜대곤 했었다.

오래전 그때나, 불상 앞에서 '백호에는 어떤 보석이 있었을까.' 하는 지금이나, 철 없는 건 똑같구나 싶어진다. 불교조각실에서 이리저리 생각의 고리를 이어간다.

주존불로서 대웅전, 약사전, 대적광전 등의 전각에서 화려한 불화를 배경으로 장엄한 수미단 위에 계셨던 분들을 한자리에 모셨다. 시대와 지역을 넘나드는 깊고 넓은 인연이다.

같은 지붕 아래 오순도순 지내고 계신 여래상과 보살상을 바라보다, 주인공을 과장해서 크게 그리는 고분벽화나 불화의 표현법이 생각났다. 혹시 현존하는 철불 중 최대인, 경기도 하남시 폐사지에서 발견된 철불께서 대장 노릇을 하시려나, 불손한 궁금증을 누르며 올라다본다. 결가부좌한 다리를 풀고 일어서시면 어찌려나, 싱거운 상상도 한다.

한쪽 어깨를 드러낸 법의와 무릎 앞 부채꼴의 옷 주름, 수인이 석굴암 본존불과 같다. 그런데 밝은 화장암이 아닌, 높이 2.88미터, 무게 6.2톤에 이르는 거칠고 시커먼 '무쇠'는 부드러운 미소를 거뒀들이고 짐짓 무심한 표정을 짓는다.

여래의 온몸은 금빛이기에 불상 제작 시 채색이나 개금이 원칙이다. 이를 보여주듯 금박을 입히기 전 처리했을 옷철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 있다. 황금빛의 거대한 불상으로 눈부신 카리스마를 지니셨을 텐데 발원자는 누구였을까.

학계에서는 철불을 조성한 세력가로 철불 발견지인 고려시대 행정구역상 광주廣州를 장악했던 호족을 주목한다. 태조의 16번째 비가 낳은 왕자 광주원군廣州院君의 외조부 왕규王規다. 이에 따라 그의 활동시기인 10세기 전반을 불상의 제작 시기로 본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던 철불은 현재 50여 예가 알려져 있다. 여타 재질의 불상이 전국에서 발견되는 것과 달리 주로 중부지방에 분포한다. 흔히 철불은 선종세력이 지방 호족의 후원을 받아 불사를 주도하면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왔다.



하남시 하사창동 출토 철불, 국립중앙박물관

실제 철불의 조성 시작이 선종 선문의 개창 시기와 같고 선종 사찰에 철불이 많기는 하지만, 이러한 연관성의 사상적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

그렇지만 새로운 사상의 파격성을 생각해보면 철보다 더 어울리는 조형 재료는 없다고 느껴진다.

교종 중심의 기성체계에 도전하며 누구나 수행하고 깨치면 부처가 된다는 선종사상, 그리고 강도가 세고 내구성이 커서 인류에게 단단한 농기구나 강력한 무기를 선사한 철, 인간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두 '발명품'의 강렬한 조합이다.

근래에는 철불이 지방 세력의 전유물만은 아니었음도 밝혀졌다.



보원사터 철불,  
국립중앙박물관

철원 도피안사 철불은 지방 향도가 중심이었지만, 보령 성주사의 철불은 문성왕의 원불願佛이고, 보원사 철불은 광종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저물어가는 신라 하대나 중앙 집권력을 갖추지 못한 고려 초기, 왕실은 절을 창건하여 선승을 모셔 오고, 지역민의 마음을 끌어모으려 했던 것이다.

철불의 탄생은 동물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 상황에서 철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주요 철 산지와 조운로漕運路로 연결되어 상대적으로 철에 대한 접근성은 높았기에 가능했다. 국내에서는 낫선 재료였지만 중국에서는 성당기盛唐期부터 철불이 유행이어서, 귀국한 유학승에게는 동물의 대체품인 철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던 점도 들 수 있다.

또한 풍수지리의 비보사상과도 관련이 깊다. 철불이 터를 진압하여 사찰을 수호하고 안정화 시킨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동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소조보다 견고하며 목조나 석조보다 빨리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경제성과 실용성도 나말여초 ‘핫 아이템’, 철불의 조성에 큰 몫을 한다.

사회적 혼란기에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대규모 불사가 이루어질 때, 이를 뒷받침한 것은 최첨단의 기술력이다. 어떤 금속보다 녹는점이 높아 추출하기 어려운 철은 금보다 더 귀한 금속, 흑금黑金이라 불렸다. 다루기도 까다로워 수많은 경험이 축적되어야 철불의 제작이 가능하다. 철불은 철제 원통을 대나무 모양으로 쌓아 올린 철 당간, 보은 범주사와 논산 개태사의 거대한 철화(무쇠술)과 함께 사찰에서 발원한 불사가 주조 기술 발달을 견인하였음을 보여준다.

철불은 크기 때문에 여러 판을 결합시킨 거푸집으로 주조한다. 판과 판의 이음새에 쇳물이 흘러든다. 얼굴 정면을 제외한 턱선이나 옷주름을 따라 형태를 분할해서 흔적들을 감추려 공을 들여도 또렷이 보인다. 이마, 가슴과 허리, 무릎, 등에 남은 선들이 얼핏 벌어진 상처의 봉합선 같다.

전북 남원시 실상사 약사전 철조여래좌상의 경우 무려 38면 분할이 확인되었다. 당대 장인에게는 기술적 한계로 여겨져 실망감을 주었겠지만 현대 우리에게선 철의 괴량감과 함께 독특한 조형미로 느껴진다.

그런데 충남 서산시 보원사터 철불은 도드라진 분할선이 영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 보다. 고려의 화엄종 최초 국사인 탄문坦文이 10세기 중반 조성한 불상으로 육계에는 녹색 칠이 곱게 남아 있다. 얇은키 2.57미터에 이르는 큰 체격인데 입을 앙다물고 뽀로통해 계신다. 두 손을 잃고 텅 빈 채 남아 있는 손목을 보니 아픔을 참고 계신 듯도 보인다. 어쩌면 서산 마애삼존불과 가까웠던 원래의 자리가 사무치게 그리우신 건가. ‘신라 말 고려 초의 철불은 호족의 자화상’이란 표현이 딱 맞다 싶게,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다.

나이 오십이 넘어서 듣는 노모의 이러저러한 당부가 새삼 마음을 흔들고 지나간다. 한숨을 삼키면서도 설렁설렁한 태도를 매만지게 된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 소리를 듣던 아버지와 남편 때문에 “복장이 터진다.” 하시던 어머니, 두 분 덕에 어릴 적부터 낯설지 않았던 부처님들에게 마음의 소리를 전해본다.

‘천 년 넘게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니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간절하시겠네요, 그런데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제 부탁도 들어보세요.’

문정원 회원

# 가만가만 손을 뻗으면

소음과 관계에 지친 사람들이 저마다 치유법을 소개하고 독려하는 기사가 자주 보인다. 주로 혼자만의 일상을 도모하고 여행하며 위로받고 충전하는 이야기들이다.

가만히 심심할 수 있는 곳은 누구나 꼭 필요하다. 혼자 오래도록 방심할 수 있는 공간은 의외로 익숙한 곳에도 있었다. 마음의 동요를 표정에 드러내지 않는 돌부처들이 동근 의자를 중심으로 모여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301호 불교조각실이다.

통일신라는 예술 표현이 가장 왕성했던 시대였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기반으로 신앙이 깊고 다양해졌다. 8세기 전후로 신라는 특유의 조각기풍에 당의 사실적 양식을 받아들였고, 아름다운 자신감을 발하는 감산사 석불을 만들었다. 안사의 난으로 당의 통제권이 약화되고, 일본이 신라 정벌을 포기하는 8세기 중반 경덕왕 때는 지배권을 확실히 장악하고 발전에 주력한 최전성기였다. 비례와 조화를 중시하고, 생동감과 절제미를 갖춘 이상적인 석굴암 본존불이 이때에 탄생하였다. 8세기 말, 무열왕계는

폭우로 인해 명주군왕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내물왕계 원성왕이 즉위하면서 몰락한다. 지배계급의 변화는 중앙집권체제를 약화시켰고 귀족들은 화려함과 디테일에 집착하였다. 9세기 왕실은 권력투쟁에 빠지고, 국가적으로 금속기 사용을 제한하며 불교조각은 현실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최고가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경외감을 동반한다. 생각이 안으로 깊어지면, 느낌표보다 물음표가 마침표보다는 쉽표가 필요하다. 이상적인 세계보다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9세기 석불에 마음이 가는 이유이다.

감산사 석불 양옆으로 멀리 경주 남산 삼릉곡 정상 부근에서 온 석조 약사불과 고향을 모르는 석조 비로자나불, 그들이 마주 앉아 있다. 문헌에도 없고 명문도 없지만, 바라볼수록 친근하고 궁금해지는 돌부처 두 분과 만난다.

석가모니가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도를 깨닫는 중요한 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항마촉지인을 하고 왼손바닥에 합을 들었으니 약사불이다. 밀교 승려 불공이 『약사여래염송의궤』를 번역한 730년경 이후로 약합이나 보주를 왼손으로 잡거나 그 위에 올려놓는 이 도상이 나타났다. 통통 부은 눈에 근엄하게 굳은 얼굴, 몸체에 비해 큰 머리와 웅크린 자세는 친숙한 인간의 모습인데, 중생을 질병과 고난으로부터 구원하는 부처님이라니! 전체 높이가 3m 40cm인 이 우람한 석상은 어떻게 만들까? 화강암에 일정하게 깊은 홈을 파 나무 썰기를 박고 물을 부으면, 나무의 부풀어 오르는 힘에 의해 바위가 쪼개진다. 치밀하게 설계한 전체 모습을 정과 망치를 이용해 다듬고 섬세한 세부는 날카로운 정과 편치로 조각한다. 신라의 영산, 남산의 거대한 화강암은 장엄한 신앙의 대상을 투영하기에 절대적이지만, 정교한 조각이

어려워 복잡한 공정과 긴 시간이 필요했다. 끊임없는 열정을 가진 장인들은 결국 남산 200여 곳을 마애불과 석불로 조성했고, 성역화되었다. 거대한 바위산 앞에서 명상에 잠긴 약사불의 모습을 『조선고적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 어깨로부터 무릎 아래로 내려온 법의 단에 눈길이 간다. 뾰족한 삼각형이다. 옷자락을 들어 올리면 대좌를 가득 채운 길상좌의 민낯이 보일 것만 같다.

대좌의 하대석 쌍잎 연꽃무늬와 상대석 겹연꽃무늬 조각의 정교함은 통일신라 중엽의 전형적 양식이라 하는데, 팔각 중대석의 앞과 뒷면 안상 안에는 약사불과 잘 어울리는 향로가 자리하고 있다. 다른 면에 부처에게 공양하는 천인상 장엄 조식彫飾까지 대좌의 화려함이 돋보인다.



삼릉곡 석조약사여래좌상, 『조선고적도보』 중



나발과 낮은 육계 너머 부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빛을 형상화한 광배는 얇은 석재로 석불에 기댄 상태라 천년을 넘게 지탱한 것이 경이롭다. 광배 안쪽에는 화불과 꽃무늬, 가장자리에는 타오르는 불꽃 무늬를 둘렀다. ‘여래 몸의 털구멍마다 빛이 나와 빛줄기마다 끝에 연꽃이 있고, 그 연꽃마다 화불이 있어 이를 둘러싼 대중들에게 설법한다.’는 화불을 표현한 구절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건너편 비로자나불 광배는 참 아름답다. 보상화문, 당초문, 운문과 화염문 장식이 섬세하다. 한쪽 손으로 반대편 손가락을 감싸 권 지권인을 한 비로자나불은 온 누리에 가득 찬 진리의 빛을 형상화한다. 이 손갓춤은 당의 불공이 번역한 『금강정경』에 언급되어 8세기 중엽 중국에 알려지게 되면서 신라에도 소개되었다. 둥그랗고 여성스러운 얼굴과 아담한 체구를 한 이 불상과 비슷한 화려하고 장식적인 양식이 9세기 경주를 중심으로 경상도 일대에 다수 전하는 것으로 보아 출토지를 그 근처로 추정한다.

화강암은 주요 성분이 어우러져 흰빛으로 보여 채색하지 않아도 아름답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비로자나불은 미묘한 흰색 효과를 잘 살린 좋은 예인 것 같다. 고운 빛이 배어난다.

대좌 하대석 팔각 받침에는 안상 안에 웅크리고 앉은 사자 일곱 마리와 꽃무늬가 얇게 돌을새김되어 있다. 사자는 불교 유입과 함께 불법을 수호하는 상징으로 인식하여 불교미술에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시대에 따라

용맹스러운 모습을 담기도 했는데 이 사자들은 머리 갈기가 보이지 않고 앉음새도 편안해 보인다. 사자가 받치고 있어서일까. 아래로 향하는 연꽃대좌 하대석이 든든해 보인다. 중대석에는 보살로 보기도 하지만 부처에게 공양하는 천인일 가능성이 있는 여덟 명의 공양인상이 새겨져 있다. 이 조형물을 중요시한 까닭일까, 중대석 아래 굽형궤대가 받치고 있다. 위로 솟은 상대석 접연꽃잎을 보면 그 아래 누워 정교한 솜씨를 올려다보고 싶어진다.

천년도 넘은 약사불 좌상과 비로자나불 좌상이 불상과 광배, 대좌를 온전히 갖춘 채 다치지 않고 지금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다.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감산사 두 석불 곁에서 발산하는 당당한 매력은 평화롭다. 그래서인지 돌부처 두 분을 바라보면, 어깨에 힘이 빠지고 귀와 어깨가 멀어지는 만큼 긴장이 풀린다. 시선 끝에 머무는 손이 하는 말이 들릴 것 같다. 국보에만 감탄하며 그저 스치는 사람들에게 이 보배로운 부처님들을 소개하고 싶다. 국보나 보물이 아니어도 귀한 숨결을 느껴보라고.

박물관이 고요한 오후, 킁킁한 전시실에 놀랍게도 작은 아이가 겁내지 않고 둥근 의자에 선처럼 누워 비로자나불과 눈 맞추고 있다. 방해되지 않도록 멀찌감치 서서 멍하니 바라본다. 무얼 보고 있을까? 멀리서 엄마 목소리가 들리니 가만히 부처님께 손 인사를 건네고 내 옆을 스쳐간다. 지금 내가 본 것은 무엇일까?

정은정 회원



석조약사불좌상, 국립중앙박물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국립중앙박물관



# 조우 遭遇

강현자 회원

그의 이름은 금동미륵반가사유상  
가끔 그가 있는 곳에 가서  
천 년 동안 머금고 있는 미소를  
속세에 일그러진 내 미소와 비교해본다

어느 때는 내 어리바리함을 보고 웃는 것도 같고  
어느 때 보면  
나처럼 어리바리하게 웃고 있는 것도 같고  
가만히 들여다볼 때마다  
그가 넌지시 건네주는 게 있더라

매번 색다르게  
매우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나만 몰래 받는 것 같아서  
주위를 힐끔거리게 되더라  
가슴을 콩닥이며  
마음 깊숙이 챙겨 넣게 되더라  
신라에서 내 마음까지 오는 데 천 년이 걸린  
그것





김정호, 《대동여지도》, 국립중앙박물관

## 조선지도 500년

### 공간·시간·인간의 이야기

김정호와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의 생애나 《대동여지도》의 내용과 쓰임새를 잘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현대지도와 전통지도를 비교하면서, 혹은 서양지도와 동양지도를 견주면서 우리 전통지도의 가치를 폄하하는 경향마저 있지만, 정작 지도라는 매체의 본질을 살피면서 우리 전통지도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보려는 노력은 충분하지 않다.

지도는 공간에 대해 한 공동체가 갖는 관점과 지식, 그리고 지향을 담는 그릇이다.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실존의 공간은 시간의 산물이기에, 자연스레 지도는 시간

을 담는다. 그리고 사람을 담는다. 지도는 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 걱정과 한숨을 담는다. 전통지도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대동여지도》가 그러한 지도였고, 19세기의 위대한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인 김정호가 바로 그런 지도를 만든 사람이었다.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세상에 내놓은 1861년(철종 12)은 나라 안팎으로 위기의 시기였다. 안으로는 실정失政에 지친 농민들의 불만이 들불처럼 퍼져가고 있었고, 밖으로는 중국이 서양의 열강들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왔다.

김정호는 이미 1834년에 <청구도靑邱圖>라는 이름의 전국지도를 제작하여 작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줄곧 지도와 지리지 연구에 몰두했고, 마침내 우리나라 전통지도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대동여지도》를 간행했다. 그런데 그는 왜 지도의 제작에 매달렸던 것이며 어떻게 그러한 위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의 지도는 위기에 봉착해 있던 조선왕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흥미롭게도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조선총독부가 펴낸 한국어 교과서인 『조선어독본朝鮮語讀本』에는 자못 명쾌한 가설이 제시되어 있다. “어려서부터 지도에 관심이 많던 김정호는 모진 시련 속에서도 오로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백두산에 8번 오르고 전국을 3번 답사해서 《대동여지도》를 제작해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 대한 보상은 커녕 국가의 기밀인 지리정보를 유출했다는 죄로 그는 도리어 흥선대원군의 노여움을 샀고 결국 옥에 갇혔다. 그리고 그의 지도는 모두 압수되었다.”

이 이야기는 광복 후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김정호와 《대동여지도》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조선어독본』의 내용을 ‘상식’으로 여긴다. 하지만 광복 후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이야기를 뒷받침할 역사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어독본』에서는 김정호의 위대함을 《대동여지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대적 맥락 속에서 설명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일제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업적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조선 조정의 무능함을 강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의 위대함은 신화적인 행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조선어독본』은 김정호 이전의 지도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지도를 만드는 구체적인 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기술도 없다. 그저 홀로 전국을 답사하고 백두산을 여러 번 올라 지도를 만들었

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이다. 덕분에 김정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위인으로, 또한 시대를 잘못 만난 비극적인 영웅으로 묘사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허할 따름이다. 이는 당시 지도의 의미와 가치를 구체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고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평가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지도 제작 전통 안에서 조선의 수많은 지도 제작자들과 그들이 남긴 다채롭고 풍성한 성과를 논의할 여지는 처음부터 없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래 천오백 년 이상 지도를 만들어 쓴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미 삼국시대에 지도를 만들어 활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실제로 평안남도 순천에서 발견된 고구려 무덤 벽화에서 지도의 흔적이 확



《전라도 무장현 지도》, 국립중앙박물관



정상기 <동국대지도>, 보물 제1538호, 국립중앙박물관

인되었다. 628년 고구려는 당唐 조정에 <봉역도封域圖>라는 이름의 고구려 지도를 증정한 일이 있으며, 백제도 7세기 초에 '도적圖籍' 곧 지도와 호적을 행정에 사용했다. 또한 삼국을 통일한 신라도 671년 행정구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도를 이용했다.

고려왕조도 지도를 만드는 전통을 면면히 이어갔음을 기

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2세기의 학자 윤포尹誦는 <오천축국도五天竺國圖>라는 불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지도를 제작했고, 1281년에는 원의 한 사신이 고려의 지도를 요구한 일이 있었다. 또한 1356년 고려는 몽골의 세력을 내쫓는 과정에서, 지도를 활용해서 원의 지배를 받던 철령 이북의 동북 국경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또한 고려에는 국토의 윤곽을 닮은 은병銀瓶이라는 화폐가 있었다. 고려왕조가 망한 뒤 불과 10년 만인 1402년 이첨李詹이라는 관리는 고려 지도를 보고 느낀 소감과 그 내용을 상세히 전한다.

조선왕조의 개창 후 10년 만인 1402년에 제작된 동아시아 최초의 진정한 세계지도로 평가되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새로운 왕조의 세계관과 포부를 보여주는 동시에 고려시대 지도 제작 전통의 힘을 느끼게 해준다. 이 지도의 우리나라 부분은 고려시대의 지도를 계승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추구했던 조선왕조는 일찍부터 효율적인 통치와 행정을 위해, 그리고 영토 확장과 국토 방위를 위해 지도를 자주 만들었다. 왕조를 개창한 직후에 새로운 수도로 한양을 선택하기에 앞서 이곳의 지도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 개편한 지방 행정 구역을 반영하는 전국지도를 만들었다. 세종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도 제작 사업을 시작했다. 천문학 기기로 서울과 강화도, 백두산, 제주도의 위도를 측정하고, 기리고차記里鼓車와 같은 거리 측정 장치를 개발해서 사용한 것이 이때의 일이었다. 1434년(세종 16)에는 지방 모든 고을의 지도를 만들어 바치도록 하는 조치도 있었다.

공간 정보를 담는 또 다른 매체인 지리지 편찬 사업이 세종대에 추진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조선왕조는 동서고금의 어떤 왕조도 해내지 못한 수준으로 개별 지역의 정보를 속속들이 파악했다. 1481년에 완성된 『동국여지승람』

東國輿地勝覽』은 조선왕조의 지리지 편찬 사업을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성과물로 지리지 편찬의 표준을 제시했다. 16세기 후반부터 지방의 각 고을이 자체적으로 지역 단위의 지리지인 읍지邑誌를 만들게 되면서, 조선왕조의 지리지 편찬 문화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한층 더 풍성해졌다.

이렇게 풍성한 지리 정보가 축적되면서 지도가 발달할 기반도 단단하게 구축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중앙정부가 지리지 편찬을 주도했지만 점차 지방의 수령과 재지 양반이 지리지 제작에 활발하게 참여한 것처럼,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민간에서도 지도 제작에 참여했다. 그들은 중앙정부에서 만든 지도와 지리지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지도를 만들어 보급했다. 특히 정상기의 지도에 대한 영조의 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정부에서 만든 지도를 능가하는 성과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정부와 민간은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지도 발달을 이끌었다.

이처럼 조선왕조 500년을 풍미한 '조선지도'는 동아시아의 지리학 연구 및 지도 제작 전통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한국의 지도학 전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외국에 널리 알린,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 개리 레드야드Gari Ledyard 명예교수는 "한국의 문화가 중국 문명의 많은 특장과 제도를 자유로이 흡수하면서도 강하고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한 것처럼, 한국의 지도 제작자들은 중국에서 발전된 지도 제작의 일반적 규범을 적용하면서도 이를 자신의 환경에 응용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지도들을 창조했다."고 평가한다.

한민족은 오랜 시간 뿌리내려 살아온 한반도의 역사적·지리적 특성에 걸맞은 세계관과 국토관을 발전시켜왔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시대의 지도 제작자들은 지도라는 매

체 위에 공간에 대한 관점과 지식, 그리고 지향을 담았다. 조선왕조가 지향하던 성리학적 이상 속에서,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한 태평성대를 바라는 자신들의 희망과 기대를 지도 위에 담아낸 것이다. 국토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산줄기를 흐르는 좋은 기운을 받아 조상들의 명복과 가문의 번성을 기원한 풍수지리 관념은 이러한 공간 이해와 그 산물인 지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신들을 둘러싼 이 모든 공간이 시간의 산물임을 결코 잊지 않았다. 자신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공간 곳곳에 아로새겨진 시간의 흔적과 흐름을 지도에 싣는 작업은 조선의 지도 제작자들의 중요한 임무였다. 조선지도가 가지는 역사지도로서의 강한 속성은 오늘의 일상이 역사의 흐름 위에 있으며 역사의 중요성을 늘 기억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효과적인 장치였다. 이처럼 조선지도는 시간의 산물로서의 공간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공동체의 이해와 지향을 담은 효과적인 그릇이었다.

장상훈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장



김정호, <대동여지도> 목판, 보물 제1581호, 국립중앙박물관

\* 이 글은 특별전 도록 『지도예찬』의 머리말을 전재한 것입니다.



## 지난 여름, 담양



금성산성

푸르름이 짙어가는 여름의 길목 6월. 전남 담양으로 답사길에 나섰다. 박물관 강좌를 들으며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답사 시간이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답사를 통한 경험은 늘 신선한 감동과 생생한 느낌을 가져온다. 우린 우리가 경험한 만큼 느끼는 법이다. 그 경험의 폭은 반드시 학문적인 부분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각적 경험은 삶을 한층 더 깊게 해 줄 대체할 수 없는 요소이다.

담양에서 순창으로 가는 삼거리에서 석당간과 오층석탑을 만난다. 이름도 낯설었던 당간. 그것이 사찰 입구에 세우는 깃대를 가리킨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세워진 연대는 고려시대이지만 백제의 석탑양식을 따랐다는 남산리의 오층석탑. 탑의 비례감과 안정감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운 백제 석탑의 매력이 시간의 흐름을 넘어 전해진다.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지만 석당간과 오층석탑은 이곳이 커다란 절터였음을 짐작케 해준다.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높게 뻗은 멋진 길을 따라 당간에 당이 필러리고, 이제는 역사가 된 절의 풍경과 우뚝 선 오층석탑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서 그 시대를 그려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금성산성으로 향한다. 1시간여의 등산코스라는 안내는 받았지만 '설마 돌레길 정도겠지.'라는 생각은 나의 큰 오산이었다. 가파른 등산길이었다. 산에 오르는 길은 신록의 계절답게 푸르른 기운에 휩싸여 있었다. 햇빛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치 않는 우거진 나무들, 대나무 숲, 그리고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이 팍팍한 다리의 노곤함을 잊게 해준다. 어느 정도 올라 이마에서 땀이 흐를 즈음 가파른 바위가 보이고, 바위 위로 보국문이 눈에 들어온다.

보국문에 들어서니 하늘과 맞닿을 듯 펼쳐진 산자락과 발아래로 보이는 담양호의 물줄기가 탄성을 자아낸다. 보국문 정자에 앉아 땀을 식히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가슴 속이 시원해져온다. 마음속이 차분해지고 고요하고 평화로워진다. 저절로 행복해지는 순간이다. 잠깐의 휴식을 뒤로 하고 금성산성에 대한 해설을 들었다.

금성산성의 축조 시기는 삼국시대 혹은 신라말에서 고려 초라고도 하지만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조선시대 말까지도 이 산성은 계속 사용되었다고 한다. 산성 안에는 곡식을 쌓는 군량미 창고, 객사, 보국사 등 관아와 군사 시설



담양 객사리 석당간

이 있었다. 성의 규모가 큰 것으로 보아 안으로 들어와 보호를 받는 입보용 산성으로 사용되었을 듯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주변이 절벽이라 접근이 어려운 지리적 특성 덕분에 임진왜란 때는 의병의 거점이 되었으며, 조선이 끝나갈 즈음인 동학 농민 운동 때는 치열한 싸움터가 되어 성안의 모든 시설이 불에 타고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희생되었다고 한다.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사계절이 모두 아름답다는 이곳. 조금 전까지 아름다운 풍경으로 행복감을 주었던 이곳은 그렇게 아프고 치열한 역사의 현장이었다. 문득 가슴이 아파왔다. 이 높은 곳에 산성을 쌓은 민초들의 고통이 느껴졌다. 또 이곳에서 목숨을 버려가며 끝까지 싸우며 외치는 그들의 마지막 절규가 들리는 듯했다. 성벽 하나, 나무 하나, 발에 차이는 돌부리도, 작은 풀 한 포기조차도 이 파란만장한 역사를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라는 구절이 떠올랐다. 나의 눈에는 이미 전과 같지 않은 산성의 모습이 보이고 있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해보았다. 역사는 단지 흘러간 옛날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였다. 🐾

장수영 회원



# 사람과 동물의 제국 몽골



샤라브, <몽골의 하루> 부분

눈을 마주치겠다고 뻔히 쳐다보는 동물이 있다. 주인을 알아보고, 제 집을 인식하여 안정을 느끼며, 필요가 발생하면 간절함을 소리로 표현한다. 진망한 움직임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 이외에 쓰임새라고는 없는 이놈. 주택에 살았더라면 쥐라도 잡았을 텐데. 다시 물끄러미 파르스름한 두 눈을 마주본다. 만약에 네가 나에게 털도 주고, 젖도 주고, 고기도 주고, 연료가 되는 배설물도 주고, 또는 짐을 날라주고, 탈것이 되어준다면, 한마디로 우리 가족의 삶에 필요한 모든 재화의 생산과 획득이 너희들에게 달려 있다면, 나는 너를 예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맷게 여겼겠지. 허나 너는 여전히 주인의 눈길 한 번과 손길 한 번으로 더는 바랄 것 없다 했을 것이다.

교감하지만 계산하지 않는 동물들에 둘러싸인 몽골 유목민의 삶은 망망한 초원이라는 자연 환경에 적응한 오랜 전통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너른 마당에 자리 잡은 하얀 게르 옆으로 풀밭이 펼쳐지고 그 위에 말과 양들이 서 있다. 게르의 주인은 동틀 무렵 가축의 젖을 짜고, 말 등에 앉아 이들을 몰고 초지로 나가고, 활로 야생동물을 사냥해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전시실 안에서도 유독 도드라지는 것은 각종 동물들의 존재감이다. 다양한 마구와 무기와 생활용품에 조각된 장식과 문양은 대부분 동물이다. 신양과 시슴과 호랑이 등등. 잘 보니 더불어 사는 가축보다는 공들여 손에 넣어야 하는 사냥감들의 형상이 훨씬 많다.

먼 옛날 인류가 달리는 말을 보며 그 등에 올라타 보겠다는 과감한 결심을 한 때는 언제일까? 전시실에서 볼 수 있는 재갈은 워낙 용도가 분명한 물건이라 모두 비슷비슷하게 보인다.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7~8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몽골국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알타이 지역의 '파지리크'(몽골어로 무덤) 문화 유적인데, 함께 출토된 목각 굴레 장식과 S자형 재갈멈치가 정교하기 그지 없다.

몽골 사람들은 야생마를 길들이며 처음 재갈을 물릴 때 당밀을 사용하여 입을 벌리게 한다. 유념할 것은 강제로 밀어 넣기보다 말 스스로 물도록 훈련하는 것이란다. 처음엔 단맛을 보려고 재갈을 받다가 나중에는 혀로 재갈을 굴리며



재갈과 굴레장식  
몽골 역사학고고학연구소

노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13~14세기에 칭기즈 칸과 그의 후손들이 세계사에 전무후무한 초거대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일차적인 이유는 이들의 기동력이었다. 척박한 몽골 땅에서 자란 몽골마는 서유럽이나 중동의 말에 비해 몸집은 왜소했지만 체력과 지구력이 농경민족의 말과는 차원이 달랐다. 말하는 것보다 말 타는 것을 먼저 배운다는 몽골인들이 얼마나 노련하게 말을 훈련시켰는지, 마르코 폴로는 몽골마가 '말을 잘 듣는 개처럼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다.'고 기록했다. 또한 몽골군은 유럽 군대와 달리 지혜롭게도, 온순한 거세마와 마유를 얻을 수 있는 암말을 선호했다.

학자들은 원정에 나서는 몽골군 병사 한 사람이 거느렸던 말이 대략 다섯 필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말을 혹사시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몽골인들 자신이 곡식을 주식으로 하지 않았고, 말의 먹이는 주로 풀이었다. 따라서 군대를 주둔시킬 때 넓은 초지를 확보하는 일은 필수적이었고, 원정에 나서기 전에는 충분한 시간 동안 토론을 거쳐 전략을 수립했다. 흥미로운 것은 1241년 리그니츠 전투에서 승리하고 헝가리 평원에 주둔했던 바투의 군대가 갑자기 흑해 연안의 킵차크 평원으로 철군한 이유를 오고타이 칸의 사망만으로 설명하기는 불충분하며, 오히려 7만에 육박하는 병력이 거



느린 말들을 감당하기에 초지가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었다는 해석이다. 1260년 훌레구가 시리아에서 철군한 이 유도 이용할 수 있는 마초와 목초지가 대부분 소모되었기 때문이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흉노족에 대해 '모든 젊은이들이 활을 쏘 줄 알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모두 무장한 기병대가 된다.'고 했다. 몽골인들도 그랬다. 여럿이 함께 말을 달려 사냥감을 포위하는 전통적인 집단사냥 네르제는 의사소통과 규율이 필수적이었으며 생활인 동시에 군사훈련이었다. 몽골군의 주 무기는 각궁이었는데 뿔, 나무, 힘줄 등을 접착제로 여러 겹 붙여서 만들었고 최대 사정거리가 300미터 정도였다. 정확도와 관통력은 근거리에서 높았지만, 치명도는 화살촉의 소재와 모양에 따라 달랐다. 털이 귀한 동물을 사냥할 때는 가죽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뼈로 만든 화살촉을 썼다. 우는 화살촉(명적)은 작은 구멍이 있어서 소리를 내며 날아가므로 신호용이나 경고용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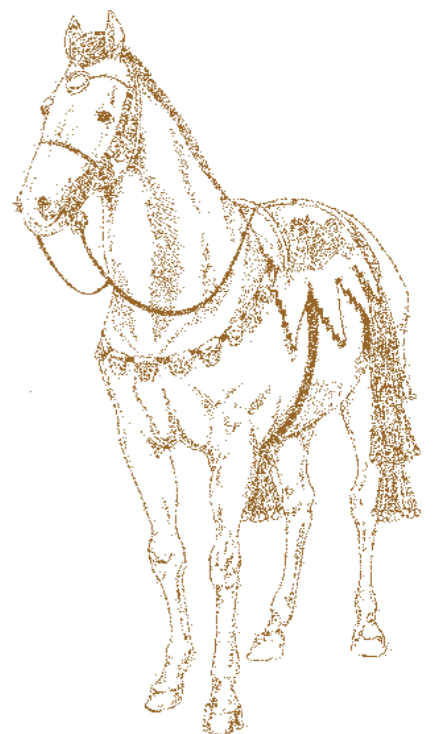
유목은 고고학과 친하지 않다고 들었다마는, 현대의 발굴 성과 덕분에 광활한 중앙아시아의 초원을 차례로 지배했던 유목민들의 제국이 우리의 눈에 그 실체를 보이기 시작했다. 주변국들의 기록으로만 추측할 수 있었던 이들 문명의 다양한 산물이 전시실 안에서 스스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활과 화살,  
몽골 역사학고고학연구소

몽골 제국의 칸들은 유목민 특유의 개방성과 실용주의 위에서 타 문명의 선진적인 제도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모든 종교에 관대했다. 저항을 철저히 응징한 반면 투항을 환영했다. 또한 대상들을 후원하고 무역로의 안전을 보장했으며, 그 대가로 상인들은 칸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했다. 이들이 놓아준 동서 간의 다리를 통해 중국의 인쇄술, 나침반, 화약이 서쪽으로, 또 이슬람의 천문학, 의학, 음악이 동쪽으로 전해졌다. 세계사의 흐름에 결정적인 전기가 된 이러한 교류가 오직 말이나 낙타 같은 충직한 동물들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는 점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다.

황문영 회원





우화루

## 화암사, 바위 위에 핀 꽃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의 불명산 깊은 숲속에 화암사라는 작고 소박한 옛 절이 있다. 몇 해 전 화암사 뒷마루에 앉아 올려다본 하늘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리 넓지 않은 마당에 사방으로 놓인 키 낮은 전각들은 벽이 되어 아늑한 공간을 만들고, 이웃한 처마들은 사각형의 틈을 내어 하늘로 열려 있었다. 마치 내 집 안마당에 들어선 것처럼 편안했다. 더도 덜도 아닌 딱 그때의 그 하늘을 다시 보고 싶었다. 화암사 정류장에 내려서니 순간 당혹스럽다. 안내판 하나

없는 험한 시골길이다. 절 입구에 늘어선 그 혼한 식당도, 구멍가게 하나도 없다. 피약벌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아스팔트 길을 걸어 오르면 그제야 작은 안내판이 보이고 좁은 숲길이 화암사로 가는 길을 내어준다. 이름 모르는 새소리를 동무 삼아 풀숲에 핀 작은 꽃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한참을 걷다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숨을 고른다. 이미 세상 시름은 숲 바깥의 것이다. 다시 걸음을 옮기는데 인기척에 놀란 다람쥐가 나무를 타고 숲속으로 달아난다.

굳이 비우려 애쓰지 않았건만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진 걸 느낄 즈음 화장기 없는 맨얼굴의 누각이 모습을 보인다. 우화루다. 곁이 터지고 휘어진 나무 기둥에서 술한 세월 동안 스치고 지나갔을 바람의 흔적을 본다. 정면이 외부에 대해 굳게 닫혀 있어 속세의 발길을 그리 반기지 않는 듯하다. 화암사의 산문 격인 우화루는 2층 누각이지만 아래가 석축으로 막혀 있어 옆으로 난 돌계단을 올라 쪽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들어서는 문턱이 아래로 휘어져 있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넘나들기에 편하다. 애초부터 용도에 맞는 나무를 생긴 대로 골라 쓴 선조들의 지혜 덕분이다. 화암사는 쉬이 곁을 주지 않는다. 문턱을 넘고서도 우화루와 적묵당 사이의 좁은 모퉁이를 지나야 비로소 아담한 절 마당으로 들어선다. 정면으로 극락전, 그와 마주하여 우화루, 좌우로는 승방인 적묵당과 불명당이 자리잡고 있다. 극락전과 불명당 사이로 화암사 중창주인 성달생의 위패를 모신 철영재가 보이고, 우화루와 불명당 사이로 명부전이 비스듬히 보인다.



극락전 하양(후면)

극락전 하양(정면)

화암사의 정확한 창건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원효와 의상이 머물며 수도했다는 중창비의 기록으로 보아 신라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오래된 고찰임에도 불구하고 화암사가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극락전의 하양식 구조가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된 2011년부터이다. 그전엔 아랫마을 사람들이 초파일에 등을 켜러 올라올 뿐 찾는 이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극락전

극락전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05년(선조38년)에 중창되었으며, 백제계 양식의 하양식 구조를 갖고 있다. 하양은 공포와 서까래 사이에 끼워진 긴 막대기 모양의 부재를 말하는데, 도리를 걸고 서까래를 얹으면 그만큼 처마를 길게 낼 수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흔히 쓰이는 건축 양식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화암사의 극락전이 유일하다. 극락전의 하양식 구조는 건물 앞뒤의 모양새가 다르다. 앞은 투각으로 용머리를 새겨 장식을 더한 반면, 뒤는 단순히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잘라 하양의 구조적 역할에 충신했다.

극락전의 현판이 이채롭다. 極·樂·殿 세 글자를 한 자씩 새겨 하나씩 따로 내걸었다. 화려한 하양의 장식을 가리지 않으려는 세심한 배려였을 것이다.





극락전 단집

극락전 내부의 단집이 또 뜻밖이다. 작고 쇠락한 극락전의 외관과는 달리 화려한 모습이 시선을 확 잡아끈다. 파리를 튼 용이 눈을 부릅뜨고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며 구름을 뚫고 나올 듯하다. 꿈틀거리는 역동적인 힘이 그대로 전해진다. 좌우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천상이 하늘거리는 천의 자락을 나부끼며 구름 사이로 유려한 선을 그린다. 아마타불이 사는 극락정토, 지극히 안락한 세상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집은 그들이 드리운 우화루의 바라지창으로 초여름의 풍경이 담긴다. 화암사에 이르는 길에는 일주문도, 불사를 수호하는 사천왕문도 없다. 우화루가 산문 역할을 대신한다. 누각을 받치고 있는 빛바랜 흰 기둥에서 오래된 시간을 읽는다. 지금 있는 건물은 1611년(광해군 3년)에 세워지며, 밖에서 보면 2층이지만 경내에서 보면 마룻바닥이 마당과 수평을 이루는 단층이다. 밖에는 기둥을 세우고 안쪽은 축대에 걸쳐 산지 지형을 자연 그대로 활용했다. 텅 빈 내부에는 바람의 흔적을 비늘로 새긴 낡은 목어가 묵직하게 매달려 있다. 닳을 대로 닳은 목탁은 하얗게 먼지가 쌓인 채 시간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준다. 우화루는 흐르는 세월에 무심한 듯하다.

스님들의 생활 공간인 적묵당의 독특한 나무 기둥에 눈길이 머문다. 천 조각을 덧대어 기운 옷처럼 군데군데 작은 나뭇조각이 끼워져 있다. 상한 부분을 메운 걸로 생각했는데 휘어진 기둥을 바로 잡기 위함이란. 이렇게 세세한 것에도 선조들의 지혜가 배어 있다. 툇마루와 수수한 모습의 살창이 정겹다. 서로 어우러져 살림집의 따뜻한 정을 전해준다.

적묵당의 툇마루에 앉아 절 마당을 둘러본다. 풍경만이 잘 그랑델 뿐 고요하다. 더하고 뻗 것도 없이 한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극락전과 우화루의 희미한 단청 자국을 빼면 치장한 흔적이라곤 전혀 없고, 절 마당에서 흔히 보던 석등과 석탑조차도 없다. 가파른 산길을 올라야 해서 그런지 찾는 이도 없다. 절엔 노스님 한 분뿐이다. 해거름녘의 산사는 빛마저도 비워 내고 적막에 잠기며 답답하게 또 하루를 품는다. 비우면 이렇게 잔잔해지는데……. 거추장스러운 치장을 비워 낸 작고 소박한 화암사, 긴 여운으로 남는다. 🌿

계운애 회원



우화루 목어



불사약을 찧는 토끼와 두꺼비 무늬 벽돌, 동아시아실

## 영원을 위해서라면

불사약을 먹고  
달나라로 간 항아님은  
달의 정령인 달두꺼비가 되었네.

달토끼와 오래오래 살자고  
쿵더쿵 쿵더쿵. 🌿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金正泰 회장을 거쳐 2017년 11월 申聖秀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申聖秀  
 副 會 長 | 尹在倫 朴殷寬  
 理 事 | 郭東錫 金錫洙 金信韓 南秀淨 朴禎原  
 禹燦奎 尹碩敏 李玉卿 許榕秀 洪錫肇  
 洪政旭 裴基同  
 監 事 | 金教台 李教祥  
 事 務 局 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 원, 은관 삼천만 원, 청자 일천만 원, 백자 오백만 원, 수정 이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주작회원**  
 尹光子 회원

**현무회원**  
 金正泰 하나금융그룹

**천마회원**  
 朴殷寬 (주)시몬느 회장  
 孫昌根 소장가  
 申聖秀 고려산업(주) 회장  
 申憲澈 SK에너지  
 尹碩敏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尹章燮 전 정보문화재단 이사장  
 鄭溶鎭 신세계그룹 부회장  
 千信一 세종문화재단 이사장  
 許榕秀 GS EPS 대표이사  
 洪錫肇 (주)BGF리테일 회장

**금관회원**  
 姜德壽 (주)STX  
 庚 園 광제사 주지  
 權俊一, 具在善 Actium Group 부회장  
 曉 暎 회원  
 金南延 (주)동훈 대표이사  
 金錫洙 동서식품(주) 회장  
 金承謙 서릉지주(주) 대표이사 의장

金信韓 대성 사장  
 金芝延 (주)컨셉 대표  
 全裁範 금강공업(주) 사장  
 南秀淨 (주)썬앳푸드 사장  
 都炯泰 갤러리현대 대표이사  
 朴炳燁 팬택&큐리텔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朴禎原 두산 네오플렉스 부회장  
 宋英淑 가현문화재단 이사장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尹在倫 정보문화재단 이사장  
 李圭植 경신금융(주) 대표  
 李明姬 일우재단 이사장  
 李垞炘 MashupAngels 대표  
 鄭明勳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鄭在鳳 (주)한섬  
 趙顯相 효성 사장/전략본부장  
 許允秀 (주)ALTO · (주)ALTEK 부사장  
 許允烘 GS건설 전무  
 洪政旭 헤럴드 · 올가니카 회장

**은관회원**  
 姜院基 오리온 대표  
 金教台 삼정회계법인 대표  
 金寧明 (주)예을 이사장  
 金英姬 회원

金載勳 영풍제약 부사장  
 金鍾漢 (주)종합전기 대표  
 柳芳熙 (주)풍산주택 회장  
 柳智勳 (주)한담 사장  
 朴英柱 아성다이소 부사장  
 朴知原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  
 裴東眩 창성그룹 대표이사 사장  
 徐載亮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成來恩 (주)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成彌鎬 광성기업(주) 대표  
 宋秉峻 (주)게임빌 · (주)컴투스 대표이사  
 宋 哲 성문출판사 대표  
 梁洪碩 대신증권(주) 사장  
 禹燦奎 학교재 대표  
 柳昌宗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尹賢慶 동화약품 상무  
 李教祥 서울가든호텔 부사장  
 李玉卿 서울옥션 부회장  
 李周成 세아제강 부사장  
 林鍾勳 한미메디케어 대표이사  
 張仁宇 선인자동차 · 고진모터스 대표이사  
 崔杜準 (주)동남유화 부회장  
 崔正勳 대보건설(주) 부사장  
 崔철원 M&M(주) 사장  
 韓惠舟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 청자회원

姜承模 KP그룹 부회장  
 高基瑛 (주)금비 부회장  
 具東輝 (주)LS 상무  
 具本權 LS-Nikko동계련(주) 부장  
 具本赫 LIG넥스원(주) 부회장  
 具瑗姬 LS-Nikko동계련(주) 부사장  
 鞠賢永 한성플랜지 이사  
 權宅煥 세기상사(주) 기획팀장  
 金建昊 신대양제지(주) 대표이사  
 金京姬 삼양사 팀장  
 金寧慈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金大煥 (주)예을 명예이사장  
 金東官 (주)슈퍼리어·슈퍼리어홀딩스(주) 사장  
 金東準 한화 큐셀 전무  
 金斗植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金相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金性南 유리자산운용 경영기획실장  
 金性完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金世淵 스무디킹 Global CEO  
 金永珉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金榮秀 김&장 법률사무소  
 金英惠 2014아시아게임 조직위원장  
 金裕錫 제일화재 이사장  
 金倫壽 (주)행남 대표이사  
 金恩惠 지리산 문화관 관장  
 金益煥 지알엠주식회사 상무  
 金仁順 한세실업(주) 대표  
 金載烈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金正宙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金宗學 (주)NXC 대표이사  
 金兌炫 서양화가  
 金澤辰 성신양회(주) 사장  
 金賢鎰 (주)엔씨소프트 대표  
 南兌勳 히든베이호텔 사장  
 柳重熙 국제약품 대표이사 사장  
 柳重熙 (주)퓨처플레이 대표이사  
 朴環鎭 라인테내셔널법률사무소파트너변호사  
 朴善正 진주햄 대표이사 부사장  
 朴仙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朴宣注 대선제분(주) 부사장  
 朴世昌 영은미술관 관장  
 朴漢正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  
 朴載相 V&S자산운용 부장

성곡미술관 이사  
 (주)신원 부회장

朴正遠 재미교포  
 朴俊泳 본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朴海春 TV조선 상무  
 方正梧 (주)한국체인모터 대표이사  
 裴允植 회원  
 徐東姪 대한광통신 사장  
 薛允碩 (주)경동홀딩스 상무  
 孫元洛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辛炳讚 아름지기 이사장  
 申硯均 법무법인 세종 대표  
 辛永茂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慎昌宰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沈宗玄 (주)진로 대표이사 사장  
 楊仁集 (주)비상교육 대표이사  
 梁汰會 동일산업(주) 대표이사 사장  
 吳勝敏 대한제강(주) 대표이사 사장  
 吳治勳 인성산업(주) 전무  
 柳東鉉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  
 柳東鉉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柳英芝 BlueRun Ventures 대표  
 尹 寬 호림박물관 이사  
 尹普鉉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尹勝鉉 (주)성보화학 대표이사  
 尹楨善 삼일회계법인 전무  
 李甲宰 (주)코오롱 상무  
 李圭鎬 열화당 대표  
 李圭鎬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李起雄 삼표산업  
 李萬圭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李美淑 목금토갤러리 관장  
 李常宰 삼성모터스 프라코 상무  
 李善眞 (주)에이티넬파트너스 대표이사  
 李秀卿 한국미술협회 회원  
 李承勇 (주)경농 부사장  
 李承勇 (주)이테크건설 부사장  
 李承勇 OCI 사장  
 李承勇 남양유업 전문위원  
 李承勇 그랜드힐튼호텔 사장  
 李承勇 수원대학교 이사장  
 李承勇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李承勇 가나아트갤러리 대표  
 李承勇 (주)삼익유니버스 이사  
 李承勇 흥아해운 전무  
 李承勇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사  
 李承勇 롯데쇼핑 총괄사장

李學俊 크리스티코리아 대표  
 李海珍 NAVER 이사회 의장  
 張同鎭 (주)파워맥스 사장  
 張善霞 (주)교원 상무  
 張升準 매일경제 사장  
 洋賢財團 (주)한길봉사회 이사장  
 田永采 중국미술연구소 대표  
 田潤洙 블룸앤코 대표  
 丁恩美 현대자동차 부회장  
 鄭義宣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鄭在昊 현대유엔아이 전무  
 鄭志伊 성암고서박물관장  
 趙炳舜 경동소제 대표이사  
 曹榮美 우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曹在顯 (주)가온소사이터티 대표  
 趙希卿 하나유비에스 대표  
 陣在旭 천일식품(주) 대표  
 千碩圭 (주)카카오 CFO  
 崔世勳 (주)인팩 대표이사  
 崔世勳 회원  
 崔世勳 SK(주) 부회장  
 崔惠玉 회원 · 자원봉사  
 韓國도로공사 노루홀딩스 회장  
 韓榮宰 (주)오투기 회장  
 咸泳俊 일진홀딩스(주) 대표이사  
 許正錫 SPC(주) 부사장  
 許辰秀 玄明官 (주)화승R&A 부회장  
 玄智皓 호성흥업 회장  
 玄智皓 (주)더벤처스 대표이사  
 胡鍾一 남양유업(주) 부장  
 胡昌成 고려제강 상무  
 洪範碩 고려상사(주) 부회장  
 洪碩杓 회원  
 洪碩杓 洪元福, 金根鎬 (주)BGF리테일 부사장  
 洪正道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대표이사 사장  
 洪進基 마리오아울렛 이사  
 洪振碩 남양유업(주) 상무  
 黃仁奎 충남도시가스 대표이사  
 Joseph Bae KKR Asia Limited 대표  
 Mark Tetto TCK Investments 상무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